

“경주 APEC 성공 개최’ 완벽한 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총력

경북도 행정부지사, 현장 점검
국제행사 수준 환경 조성 박차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행사 시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행사(CEO 서밋) 주 개최 장소인 경주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공식 만찬장과 국제미디어센터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달 19일에도 관련 주요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준비 과정의 내실과 속도 확보를 강조해 왔다.

경주 예술의전당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2만 245㎡ 규모로 1053석 규모의 화랑홀을 비롯한 3개 공연장과 미술관, 회의실 등을 갖

춘 복합문화공간이다.

APEC 정상회의 경제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내부 공간뿐 아니라 야외 광장 등 모든 가용 공간을 활용한 복합행사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승강기 교체, 외벽 타일 보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국제행사 수준의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부지 선정이 다소 늦어져 공사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공식 만찬장 조성 현장도 찾았다. 이 만찬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계와 정밀 발굴조사를 병행해왔다.

이어 5월 말 착공 이후 기초공사와 목구조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약 15일 단축해 9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미를 반영한 이 건축물은 한국

적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공식 만찬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야외에 조성되고 있는 국제미디어센터는 현재 철골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도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야간 및 휴일 시공을 병행하면서 9월부터 방송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APEC 회의와 관련한 전 세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과 품질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만찬장의 경우 건축법상 감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는 자체적으로 건축사 상주 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관리, 자재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다각도의 점검 체계를 적용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시설을 둘러 보고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술지도도 병행하여 현장 관리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와 격조를 갖춘 시설과 인프라를 준비하는 동시

에,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안전과 완성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경주 오는 빅테크 CEO...PRS급 객실은 누가 쓸까

< 프레지덴셜 로열 스위트 >

APEC 숙소에도 관심

35개 객실 중 21개 정상들 사용
10여개는 CEO들에 배정하기로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반시설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프레지덴셜 로열 스위트(PRS)급 객실 10여개에 투숙할 국민급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 APEC에서 PRS급 객실은 모두 35개가 조성되는데 21개 회원국 정상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0여개는 글로벌 CEO에 배정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기반시설 가운데 PRS급 객실의 경우 기존 16개, 신설 9개, 준PRS급 10개 등 총 35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에서 열렸던 2005년 부산 APEC 당시 PRS급 객실 21개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신설되는 PRS급 객실은 소노캄·라한·더케이·강동·코오롱·코모도호텔에 1실

경주 로열스위트(PRS)급 숙소 현황

신규	소노캄1, 라한2, 더케이2, 강동2개 등 9개
기존	힐튼1, 코모도2, 한화3, 소노캄 5개 등 16개
준 로열 스위트급	힐튼2, 황룡원2, 농협2, 컨스턴트2개 등 10개

자료: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

또는 2실이 마련된다. 정상들이 투숙하는 숙소 이외 미배정 PRS급 객실에는 글로벌 빅테크 CEO를 초청하기로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경주 APEC에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CEO를 다수 초청할 예정”이라며 “그분들이 CEO 서밋 각 세션에 키노트(기조연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CEO 서밋의 주요 행사로는 퓨처테크 서밋·K테크 쇼케이스·문화행사 프로그램

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퓨처테크 서밋에서는 철강·우주항공·2차전지·헬스케어·인공지능(AI)·원전·가상화폐 등 9개 분야 20개 세션이 열려 미래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미디어센터·전시장·만찬장 등 다른 기반시설 조성은 완공 목표 시점을 기존 9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미디어센터 40%, 전시장 25%, 만찬장 20%를 각각 보이고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야외전시장에 들어서는 미디어센터는 정상회의의 주간 4000명 이상의 내·외신 기자의 방문이 예상된다. 도는 미디어센터를 K푸드·K의료·K컬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대한민국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경주 국립박물관 중정에 조성하는 만찬장은 부지선정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9월 중순까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협력과 화합의 장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동=손성락 기자